

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, 농업용수 100% 확보

✎ 성영숙 기자 | ㉠ 승인 2022.03.18 09:46

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(지사장 전수현)는 지난 17일 양평군 내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용수 확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봄철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.

양평광주서울지사는 대평 저수지 등 6개소(수혜면적 477ha, 총저수량 2,272천 m^3)를 점검했다. 그 결과 저수량 226만5000 m^3 로, 유효저수량 대비 100% 확보돼 현재 봄철 용수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.

기상청 날씨(강수량) 장기전망에 따르면 3,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%,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%로 예측하고 있으나 기상변화에 따라 가뭄이 예측된다면 선제적으로 급수일정을 조절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본답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전수현 지사장은 “안전영농을 바라는 마음으로 양평군 내 농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성영숙 기자 sys@ypsori.com